

2007월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의 주어-동사 도치구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중 학

영어의 주어-동사 도치구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Verb Inversion
in English

2007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중 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507 2007-04-09

영어의 주어-동사 도치구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종 학

이종학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이 고 희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장 용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고 희 인

2006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 | |
|-----------------------------|----|
| Abstract..... | 1 |
| 1. 서 론..... | 3 |
| 2. 주어-동사 도치구문의 통사적 특성..... | 5 |
| 2.1 도치구문의 유형..... | 5 |
| 2.2 주어-동사 도치의 요인..... | 8 |
| 3. 주어-동사 도치의 화용적 특성..... | 24 |
| 3.1 정보구조..... | 24 |
| 3.2 화제화에 의한 주어 - 동사 도치..... | 36 |
| 3.3 초점화에 의한 주어 - 동사 도치..... | 44 |
| 4. 결 론..... | 52 |
| 참고문헌..... | 55 |

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Verb Inversion in English

Lee Jong-hak

Adviser : Prof, Ko-hee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subject-verb inversion structures in English and to show the type of inversion and the reasons for inversion and the functions of inversion by examining studies of this subject suggested by linguistics. To fulfill the purpose, the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he concept and the reasons of inversion. An inversion structure can be defined as a structure in which the predicate verb or the main verb comes before the subject. Usually, the subject - verb inversion is divided into two types: Subject-verb inversion come from the fronting of prepositional phrases, subjective complements, objects and adverbial phrases. About the fronting of prepositional phrases, the prepositional phrases are locative and directional prepositional phrases and the verbs must be the intransitive verbs, such as *be*, *sit*, *stand*, *lie*, and so on, which have the meaning of existence.

The fronting of subjective complements, such as adjectives, participles, to-infinitive and prepositional phrases, causes the subject-verb inversion. And the fronting of objects can also make the inversion possible. The preposing of negatives, such as *seldom*, *rarely*, *scarcely*, and emphatic words like *such*, *bitterly*, *well*, *many a* , cause the inversion. The sentences led by *so*, *neither* or *nor* can cause the

inversion as well. The inversion can also be caused by there-construction.

In chapter 3, the pragmatic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communication, writers/speakers choose the most suitable information structure to convey information most effectively and readers/hearers interpret it most precisely according to contexts. Topic and focu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information structure. They also cause the inversion. Topicalization and focalization of certain constituents are factors to cause the inversion. Thesis is summarized and concluded in chapter 4.

1. 서론

영어의 어순(word order)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Subject, Verb, Object : 이후 SVO로 표기함) 형태로 고정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은 중세영어 초기 이래로 굴절 어미가 쇠퇴함으로써, 어순이 SVO로 정착된 데 있다. 그러므로 영어 화자들은 이러한 SVO 어순이 그들의 언어 습관으로 뿌리가 깊어지면서 그들은 통상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밖의 다른 문장 성분을 차례로 두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평서문의 문장에서 동사는 문장에서 두 번째 위치에 온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사나 목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성분들이 문두에 놓여서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오게 되면 도치문이 된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 (1) a. Had I known the fact, I could have told you about it.
- b. Here comes the bus.
- c. In went the sun and down came the rain.
- d. Under no circumstances must the switch be left on.
- e. Highly visible are the particles of dirt that get caught in the cracks.

위 (1a)의 경우는 조건문의 경우인데, 접속사 if가 생략되므로 인해서 오는 도치문이고, (1b)의 경우는 부사 here를 강조하여 문두로 보냄으로써, (1c)는 불변사(particle)인 in과 down을 전치시킴으로써, (1d)는 부정어구를 문두로 보냄으로써, (1e)의 경우는 서술형용사 강조를 위해 문두로 보냄으로써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문장들이다.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도치의 문제는 주로 통사적인 면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의미적 및 화용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여러 가지 유형의 도치 구문 중에서도 주어와 동사의 도치를 유발하는 원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통사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분석 검토하는데 둔다. 본 논문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을 뒤이어, 2장에서는 주어-동사 도치의 통사적 특성과 주어-동사 도치를 유도하는 요인들을 특정 어구의 전치에 의한 도치 즉, 전치사구 전치에 의한 도치, 주격 보어 전치에 의한 도치, 목적어의 전치에 의한 도치, 그리고 부사어구의 전치에 의한 도치 및 의문 구조에 의한 도치 등으로 분석하여 주어-동사 도치에 대한 통사적 특성을 살폈고, 3장에서는 정보 구조를 검토하여, 화제화 및 초점화 등을 통한 화용적 특성을 살폈고,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지었다.

2. 주어-동사 도치구문의 통사적 특성과 요인

본 장에서는 주어-동사 도치(Subject-Verb Inversion : 이후 SVI로 표기함)에 관한 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SVI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2.1 도치 구문의 유형

문장 내의 어떤 구 구성성분이 앞으로 이동한 후 동사-주어로 어순이 바뀌는 현상을 주어-동사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보자.

Fowler(1970: 189)는 “비정상적으로 동사 뒤에 주어를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Jespersen(1970: 100)은 도치된 어순을 “일반적으로 잘 규명된 경우에서 주어가 동사 뒤에 놓여진 어순”으로 간주하며, Sledd(1959: 233)는 “도치란 동사나 동사구의 일부가 주어 앞에 놓이는 것”이라고 진술하며, Zandvoort(1962: 236)는 “주어 - 술어는 도치된 어순이라 칭할 때도 있고, 술어 뒤에 주어가 놓이는 것이 도치로 알려지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학자들마다 도치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고 있지만, 도치의 정의를 다음 (2)와 같이 요약한다.

- (2) 조동사를 포함한 술부에서 주동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동사 앞으로 보내고, 주부를 주동사 뒤에 위치시키는 구문이 도치구문이다.

도치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는 경우 (Subject-Auxiliary Inversion : 이후 SAI로 표기함)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와 주동사가 도치되는 SVI이다.

SAI와 SVI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SAI와 SVI 사이의 구별은 Hartvigson(1974: 100)과 Toolan(1988: 39)이 각각 다음 (3a)과 (3b)에서 보여주듯이 동사가 주동사인지 아니면 조동사인지에 의해 구별된다.

- (3) a. And **so much** did he thus give her that she, without having the dimmest idea of what she was doing, concluding merely that real compassion is agnosticism, awaited his return.
 b. **Also well worth reading** are the opening of Chatman.

위의 (3a)는 주어 앞에 놓인 조동사에 근거하여 SAI로 간주되고, 문장 (3b)는 주어앞에 놓인 주동사에 근거하여 SVI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SAI는 도치를 야기하는 요소 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SVI는 항상 통사적으로 나타나는 전치 요소가 필요하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 (4) a. **Into the room** rushed Bill.
 b. *Rushed Bill into the room.
 c. will he come?
 d. Don't you ever try?
 e. May he live long!

위의 (4b)는 (4a)와는 달리 전치 어구가 없는데도 SVI가 발생하여 비문이지만, (4c-e)는 전치 어구가 없이 SAI가 발생한 경우이다.

세 번째로, SVI는 동사구 전체가 이동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앞으로 이동된 어구와 동사 사이에 무한히 긴 어구가 올 수 있지만, SAI는 동사구가 조동사를 포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어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동사의 뒤에 오며, 다른 조동사가 없으면서 only 및 부정 어구와 같은 지정어(specifier)가 문두로 이동될 때는 조동사 do를 주어 앞에 위치해야 한다. 다음의 (5)을 살펴보자.

- (5) a. **Leaning against the wall** seemed to be an old man in ragged and dirty clothes.
 b. **Under no circumstances** do you seem to be eligible.
 c. ***Under no circumstances** (do) seem to be you eligible.
 d. ***Under no circumstances** (do) seem you to be eligible.

위의 (5a)에서 주동사 *seemed to be* 앞에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긴 다른 어구가 올 수 있지만, (5b)의 경우는 동사구에 조동사가 없으면서 특수 지정어인 부정 어구가 문두로 이동되어 조동사 *do*를 쓰고, (5c-d)의 경우는 SAI처럼 *do* 뒤에 바로 주어와 오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된 경우이다.

네 번째, 대부분의 경우 Green(1985: 122)이 제시한 다음의 (6a-c)에서 볼 수 있듯이 SVI 유형은 상응하는 *there*-구문이 있지만, SAI유형은 상응하는 *there*-구문이 없다.

- (6) a. **There** V S X./X **there** V S.
 b. ***Never there** had the fiddler been so happy.
 c. ***Never there** had been the fiddler so happy.

다섯 번째, SVI에 사용되는 동사는 다음의 (7a)에서처럼 대개 일항 동사 (*one-argument verb*)에 국한되고, (7b)에서처럼 수동형을 취한 동사도 단지 하나의 논항을 가져야 하며, 다른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는 (7c)처럼 용인되지 않지만, SAI는 (7d)에서처럼 두 개나 세 개의 논항을 가질 수 있다.

- (7) a. **Into the room** pushed Harry.
 b. **On the toilet wall** were found various graffiti.
 c. ***On his birthday** was sent Fred a present.
 d. **Rarely** do gorillas send their lady friends bananas.

여섯 번째, SVI는 전치된 어구에 따른 동사의 제약이 있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 (8) a. **In the garden** had been a bust of Lenin.
 b. **Onto the rug** scurried/ *stood a little gray mouse.

위의 (8a)는 전치된 어구의 in은 장소의 전치사로서 뒤에 존재를 의미하는 had been이 와도 적절하지만, (8b)의 경우는 전치된 어구의 onto는 방향의 전치사이므로 이동을 나타내는 scurried가 오는 경우는 적형이지만, 상태 동사인 stood가 오면 비문이 된다.

마지막으로, SAI에서는 대명사 주어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지만, SVI에서는 대명사 주어보다 명사 주어를 선호한다고 Penhallurick(1984: 36)은 지적한다.

- (10) a. can he swim?
- b. **Rarely** have I been so disillusioned.
- c. **Away** flew the hawk/*it.
- d. ***In** rushed I.

2.2 주어 - 동사 도치의 요인

Birner(1992)는 통사적 범주에 바탕을 두고 전치사 도치, 동사구 도치, 형용사구 도치, 명사구 도치 및 부사구 도치 등에 의한 SVI를 다루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통사적 범주 외의 기능적 범주도 고려하여 SVI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전치사구의 전치, 주격 보어의 전치, 목적어의 전치, 그리고 부사어구의 전치의 네 가지 요인을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전치사구 전치로 인한 SVI를 문장 (11)에서 살펴본다.

- (11) a. **Around his neck and on his chest** was a bid wreath of twisted garlies.
- b. **Into the house** ran john.

위 문장(11a-b)에서 전치사구인 Around his neck and on his chest와 Into the house은 문두로 전치되면서 SVI를 이끈다.

문장의 맨 앞에 장소 및 방향의 전치사구를 놓는 것도 SVI를 유도한다. 방향의 부사가 전치된 경우에는 전치된 방향 전치사구와 종종 관련되는

문체적 도치이며, 이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들은 enter, come, go fall, walk 등으로 대개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도치의 예들은 아래 문장 (12)에서 볼 수 있다.

- (12) a. **Into the house** ran John.
- b. **Down the hill** rolled the carriage.
- c. **Out from under the bed** came a tall dark handsome stranger.

김두식(1995: 289)은 전치된 요소들은 제약하는 전치사들도 이러한 도치에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장소 전치사구를 제약하는 전치사에는 among, at, in, on, within, above, alongside, behind, below, near(by) 등이 있고, 방향 전치사구를 제약하는 전치사에는 across, down, from, into, out, (a half mile) south/north of, to 등이 있다. 전치사구의 전치에서 문두의 전치사구에 대해 Bresnan(1991)은 영어의 처소격 전치사구는 비록 화제화에 의해 간접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로 해석될 수 있을지라도,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SVI를 유발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보어가 전치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로서, 어순이 보어 - 동사 - 주어의 순으로 바뀌어진 구문이다. 이 경우는 전치된 보어가 분사 및 형용사, 부정사, 명사구, 그리고 전치사구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다음을 보자.

- (13) a. ... **Preceding the grand race** is the Indianapolis 500 Festival, a month-long celebration. **setting the scene for the Christmas** season is the Christmas Gift and
(Tour Book, AAA 1994: 105)
- b. ... **Included here** are selections from the work that made Evans famous.... **Threaded though the book** are essays that provide (Chicago Tribune, Dec. 5, 1993, Sec. 14:3)

위의 (13a)의 경우는 현재 분사가 문두로 전치된 경우이며, (13b)의 경우

는 과거 분사가 전치된 경우로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보어이지만 실제상으로는 주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14)에서처럼 분사의 전치에 의한 SVI는 종속절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14) a. *Bill wonders why **speaking at today's lunch** will be our local congressman.
b. *The person who **taking tickets at the door** was had roomed with me at Yale.
c. *Since **examined today and found in good health** was our nation's chief executive, we can all breathe more easily.

아래의 문장(15)의 경우와 같은 보어로 쓰인 단순 형용사가 전치되어 SVI를 유발하는 예를 볼 수 있다.

- (15) a. **Happy** is he who reconciled with his lot.
b. **Happy** is the man who can say of little incident, "I must remember to tell her when I got home."

비교를 나타내는 보어 또는 부사가 전치된 경우에도 SVI가 발생하는데, Quirk 등 (1985: 1381)은 아래의 문장 (16)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하는 어떤 것과의 비교를 나타내는 보어 또는 부사가 전치되는 보어·동사·주어와 형용사·동사·주어 어순은 매우 중요한 도치 어순이라고 주장한다.

- (16) a. His answer was disgrace; *equally regrettable* was his departure immediately afterwards.
b. Seemingly similar to do so, but with a very different structure, is the inverted so construction:
(Kaplan 1989: 339)
c. Her face was stony and *even stonier* was the tune of her voice.

d. An examination of typical instances provides initial support for *More instructive*, perhaps, are cases where

(Langacker 1987:79)

e. ... receive less attention than the power of scoundrels. *Grandest of the Scoundrels* was Joseph Duveen, who attained enormous wealth and

(Chicago Tribune, Dec. 5, 1993, Sec. 14: 14)

위 문장 (16a)에서는 보어인 형용사 regrettable이 equally에 의해 동등한 비교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문장 (16b)에서는 원급 형용사인 similar가 전치되면서 SVI가 발생했고, 문장(16c)는 even이라는 강조 부사 뒤의 비교급 형용사가 전치되었고, 문장 (16e)보어로 쓰인 최상급 형용사가 전치되어 SVI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Penhallurick(1984)은 전치된 비교급 형용사는 원급 형용사보다 훨씬 더 선호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17a-b)를 제시한다.

(17) a. **More serious** were the injuries to his head.

b. ?serious were the injuries to his head.

Penhallurick은 (17a)의 선호도는 다른 상처가 이미 담화상에서 심각한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¹⁾ 위의 형용사구 전치에서 equally, similar, more, most, grandest 등과 같은 수식어구는 함축이나 명시성(explicity)는 담화에서 환기되

는 내용은 전치된 어구에 있는 수식 요소의 두드러짐의 측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 담화(discourse)는 Harris(1952)의 용어로, 담화란 관련된 구어 또는 문어의 의미로서, 예를 들면 단락(paragraph)은 문어에 있어서의 담화의 하나의 예이다.

보어로서의 형용사구가 전치되는 것은 전치된 형용사구가 담화상으로 뒤에 있는 명사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치된 형용사구에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구와 의미상으로 관련된 수식어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예를 다음 (18)에서 몇 가지 제시한다.

(18) 1) 첨가: also

a. **Also far from unattractive** are the Gods of Greece ...
(Grove/Atlantic,35)

b. **Also serious in intent** is the Illustrated History of Europe.
(Chiago Tribune, Dec. 5, 1993, sec. 14: 8)

2) 비교: more, most

Korean students share common problems in this field with most ESL Students. **Most specific to Korean** are the problems of adaptation posed by the Asian style of

3) 제한: particularly/especially/similarly/rather/equally/still.

Particularly impressive is the breadth and range of his survey which ...
(Toolan 1998: xii)

4) 관련: similar/central/basic/crucial/fundamental/parallel/
equivalent/relevant to.

Equivalent to these pronouns of generic person are the combination of each and every. with person or all with person, people.
(Frank 1972: 32)

5) 포함: implicit in, unique/notable among.

Unique among them is that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Independent study.

(94/94 Independent study: U of M Bulletin: 2)

전치된 구에서의 이러한 수식어들은 두드러짐을 만들뿐만 아니라 앞의 담화와 뒤에 있는 어구와의 연결 관계를 허용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문장(19)에서 볼 수 있듯이 보어로 사용된 형용사 기능의 전치사구(of +추상명사)가 전치될 때도 SVI를 보인다.

(19) a. **Of further interest** is the fact that in terms of recovery, the author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below 10 and above 10 age groups.

b. **Of particular relevance** are the rules of

또한, be + to 부정사 구문에서 to 부정사가 전치되어 SVI 구조를 만들기도 하는데 문장 (20)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다.

(20) a. **Yet to be accounted for** are the following cases.

b. **Still to be constructed within the park** is a family entertainment center.

c. **Also to be recommended in this vein** are Hernadi and

보어의 전치에서 중요한 것은 전치된 구와 동사가 처소성(locativity)을 나타내거나 함의하는 전치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바꿔쓰기(paraphrase)'을 기준에 의해 처소격(locative)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동사 앞에 위치하는 보어를 처소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Sundby(1970: 47-49)는 장소 전치사로 대치할 수 있는 동사 앞으로 전치된 분사를 다음의 (21)와 같이 나열하고 있다.

(21) a. *Following* the conversation → after

b. *Adjoining* the dining-room → near, next to, close to

c. *Facing* the woolsack → in front of, opposite (to)

d. *Heading* the list → at the (top) of

e. *Pervading* the debate → throughout, underneath

f. *Surrounding* Brighton → around

g. *Underlying* the contraceptive issue → under(neath), behind

h. *Closely related* is → akin

I. *Listed* were → on the list.

그리고 보어의 전치에 있어서 문두에 원형 동사, to부정사, 단순형 또는 완료형의 형태는 올 수 없고 다음 (22a-d)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ing, (not) to be-en 형태만이 전치 가능하다.

- (22) a. **Preceding the grand race** is the Indianapolis 500 Festival, a month-long celebration which includes a festival queen contest ... (Tour Book, AAA 1994: 105)
- b. **Still to be constructed within the park** is a family entertainment center. (Tour Book, AAA 1994: 105)
- c. ***Down** has fallen the tree.
- d. ***Away** had failed the ship.

보어로 쓰인 명사구가 전치된 경우를 Birner(1992: 68-69)가 제시한 다음의 (23)에서 볼 수 있다.

- (23) a. **An excellent appetizer** is the squab ravioli with garlic sauce.
- b. A diphthong is a double vowel sound in which the first part makes a smooth transition into the second. **Examples** are the vowel sound of I, now, and toy.

동사 앞의 명사구가 도치된 주어인지 아니면 진짜 주어인지는 논란의 여자가 있지만 Birner는 모든 명사구 도치의 경우, 동사 앞의 명사구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이 명사구가 사실상 술어/술부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편, 'the-최상급' 구조를 지닌 또 다른 명사구 도치 유형은 명사구 도치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다음에서 살펴보자.

- (24) a. ... three major aspects ... 1 Order: ... 2 Duration: ... 3 Frequency: ... As may be apparent from the foregoing discussion, the most potential Problematic \emptyset of these aspects is that of duration, and I shall devote rather greater space to

this aspect. (Toolan 1988: 49)

b. She owns several diamond rings, the least expensive ∅ of which is worth a small fortune. (Frank 1972: 278)

문장 (24a)에서 규범적인 어순은 대형태(pro-form) that 때문에 받아드릴 수 없다. 문장 (24b)에서 동사 뒤에 오는 구가 형용사구이므로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동사 앞의 명사구는 주부이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25) a. Grammatical morphemes have one(or both) of two characteristics. First, they express very common meanings, Verb tense morphemes are an example. English requires essentially every sentence to have a tense: Another example is morphemes expressing noun number; most nouns can be (Kaplan 1989: 18)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기호 표지인 an/another example를 동사 앞 위치에 두느냐 동사 뒤 위치에 두느냐는 작가의 선호도이거나 이런 종류의 기호 표지를 시도하려는 작가의 의도의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작가가 an example 대신에 one example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작가는 이것을 문 뒤에 두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first/second, one/another, some/other 등과 같은 목록 표지(list maker)의 전형적인 형식 때문인 것 같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 (26)에서 잘 볼 수 있다.

(26) a. Other dimensions of imagery can be briefly noted. One is the level of specificity at which **Another dimension of imagery** is the impact of explicit mention

(Langacker 1987: 57)

b. ... however, this item type has several drawbacks. **First**, it is **Secondly**, But more important than any of the above, it seems doubtful whether (Harris 1969: 28)

여기서 소위 명사구 도치는 작가가 자신이 의도한 항목을 나열하려는 맥락에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두의 명사구는 새로운 항목을 나열하려는 목적으로 각 목록을 시작하는 표지로서 역할을 한다. 새로운 항목을 나열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명사구를 문두에 나타나게 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나열 시작 표지에는 first/second, one/another, some/other, more/most/equally 등이 있다.

명사구 도치에도 제약이 있다. 먼저 a(n)/another 등의 비한정 한정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전치된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주어와 동사는 수가 일치한다. Birner(1992: 68)가 제시한 다음의 문장 (27)에서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다.

(27) a. **An excellent appetizer** is the squab ravioli with garlic sauce.

b. **A well-known example** are those structures defining

SVI를 유발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 목적어 전치를 들 수 있다. 부정어를 포함하는 목적어가 전치되면서 발생하는 SAI를 살펴보면, Emonds(1976): 28)는 아래의 (28)

에서 보듯이 격식을 차리는 문체에서 부정 요소를 정상적인 위치에서 맨 앞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전치된 부정 요소들이 쉼표 없이 주절에 연결되는 경우에 SAI가 발생한다고 한다.

(28) a. **Not a word** would he say.

b. **Not a moment** did she waste.

c. **Few movies** have we enjoyed so thoroughly.

d. **No help** did he offer me.

2) 특정 언어 단위 전후에 위치하여 그 언어 단위의 용법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미를 밝혀 주는 발화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를 맥락이라고 한다. 맥락은 발

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 상황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으로 분류된다. 술부의 일부로 사용된 직접화법의 인용문이 전치된 경우에 SVI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구조적으로 전달문은 직접 화법에서 평언문(comment clause)으로 분류되며, 전달문은 피전달문의 앞, 중간, 또는 뒤에 올 수 있는데, 전달문이 맨 앞에 올 때를 제외하고 주어와 전달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Quirk 등(1992: 785)이 진술한다. 다음 (29)의 각 문장을 살펴보자.

- (29) a. John said, "I am very angry."
 b. "I an your friend" said John.
 c. "Of course," said John, We're very grateful"
 d. "What do you mean?" asked Henry.(또는 Henry asked.)
 e. "I love you, " whispered Jan.
 f. "Let's go," suggested Henry.

위 문장 (29)에서 볼 수 있듯이 Quirk 등(1985: 1022)은 전달문의 전치에 의한 도치는 전달 동사가 said, asked, whispered, suggested 등이다. 그러나 문장 (30)에서 볼 수 있듯이 전달문의 주어가 대명사이고 동사가 said 일 때 도치는 흔하지 않다고 한다.

- (30) a. "I wonder," *John said/ he said/ said John*, "whether I can borrow your bicycle."
 b. The radio is loud," *Elizabeth complained/ she complained/ complained Elizabeth*.

SVI를 유발하는 마지막 요인으로서 부사어구 전치에 의한 도치를 들 수 있는데, 부사 어구 전치에 의한 도치란 out, then, next 등과 같은 장소의 부사의 전치로 인해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유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O'Connor(1971:59)가 제시한 다음 (31)에서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 (31) Lastly the soft thud of something that signaled the end of the confession, and out came the woman, head lowered, hands

joined, looking neither to right nor left, and tiptoed up to the altar to say her penance.

문장의 동사가 단순 과거 또는 현재 시제일 때 공간적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전치되는 구문은 아래 문장 (32)에서 볼 수 있듯이 감탄적인 진술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다.

- (32) a. **Up** trotted the dog!
b. **Round and round** spins the fateful wheel!
c. **Away** they ran!

장소 및 방향 부사 전치에 의한 도치에도 제약이 있는데, Quirk 등(1985: 1153)에 의하면, 주어가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일 때 SVI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벼운 요소는 중앙에 두고 무거운 요소는 주변 자리에 놓는 상대적 무게의 원리와 일치한다. 이 제약에 관한 예들은 다음 (33)에서 볼 수 있다.

- (33) a. **Away** it went (*Away went it).
b. **Here** she is. (*Here is she.)
c. **Off** we go!
d. **Here** he comes! (= He is coming here.)

Grad(1995), Erdmann(1979) 등은 thus나 so와 같은 부사는 SVI와 SAI와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사 thus는 이것이 소속한 문장과 앞에서 언급한 진술 내용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종종 문장의 앞 위치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영어의 도치된 어순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고 Grad(1955)는 주장한다. 더욱이 그는 화자의 감정 상태에 의해 강세를 받으면, 부사 thus는 주어의 도치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한다. Grad(1955: 373)가 인용한 아래 문장 (34)에서처럼 부사 thus가 문두에 온다고 반드시 도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34) a. **Thus** the world began for these two young ladies.
 b. **Thus** the morning had been made heavy to maggie.

위 예문 (34a)에서 주어인 the world는 그 길이가 짧아 부사 thus와 동사 began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거나 전위의 thus에 자신의 감정을 담지 않는다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꿀 이유가 없다. 이것은 전치된 VP 요소는 작가 자신의 감정적 태도를 표현함으로써 진술한 내용의 진실을 유지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문두의 구는 진술한 내용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강력한 수행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Quirk 등(1985: 549)은 어떤 제한 어구는 초점 종속어(focusing subjuncts)로써 SAI 구조를 갖는 맨 앞의 not을 강조하는 통사적 자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치를 허용하는 제한 어구는 not just/only/merely/simply 등이 있는데 이들 중 not merely와 not only는 Makkai(1972: 6)가 제시한 다음 (35)에서처럼 거의 도치 구문을 유도한다.

- (35) He claimed that **not only** is the use of meaning a convenient practical procedure **but** it is a necessity on the theoretical plane as well that, in that, his critics themselves did allow facts other than distribution to influence their phonological analyses.

또한 Quirk 등(1985:549)은 의미상으로 부정어린 어구들(예를 들어, seldom, rarely, scarcely, hardly, never, little, no sooner, few, least of all, not only, not until, only after, nowhere, not even, at no times, in no way, barely, under no circumstances 등)이 맨 앞에 올 때 그들은 SAI를 유도하고, 그러한 용법은 어조에 있어서 문어체적이거나 웅변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음 (36)에서 이러한 예문들을 볼 수 있다.

- (36) a. **Rarely** does crime pay so well as many people there.
 b. **Little** did I expect such enthusiasm from so many.

- c. **Few movies** have we enjoyed so thoroughly.
- d. **Only when John speak in Arabic**, can he explain it well.
- e. **Hardly(Barely, Scarcely)** had he left his house when his wife came home.
- f. **No sooner** had he stood up than he began to shout to the audience.

그러나 다음 (37)에서처럼 rarely는 맨 앞에 높여질 때 긍정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도치가 되지 않는다고 Quirk 등(1985: 781)은 주장한다.

- (37) a. **Rarely**, crime pays well.
- b. **On rare occasions**, crime pays well.

부정어 전치에 의한 도치에도 제약 조건이 있는데, 즉 어떤 부정 어구를 갖는 문장이 중의적일 때는 다음 (38)에서처럼 어순에 의해 그 중의성이 해결된다.

- (38) a. John would be happy with no job.
- b. **With no job** would John be happy.
- c. **With no job**, John would be happy.

위의 (38a)는 중의적인데, 이것은 다음의 (39a) 또는 (39b)를 의미할 수 있다.

- (39) a. There is no job such that John be happy.
- b. John would be happy if he had no job.

문장 (38a)에서 부정어 문장 (39a)에서처럼 광의의 작용역(wide scope)을 나타내거나 문장 (39b)에서처럼 협의의 작용역(narrow scope)을 나타낸

다.³⁾ 한편 문장 (39b-c)는 둘 다 중의적이지 않다. 문장 (38b)는 부정이 광의의 작용역을 갖는 문장 (39a)를 의미하고, 문장 (38c)는 부정이 협의의 작용역을 갖는 문장 (39b)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의 (40)은 다른 상황을 나타낸다.

- (40) a. John would be happy, with no job.
 b. *With no job, would John be happy.

위의 (40)처럼 전치사구의 앞 또는 뒤에 휴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의 작용역 해석만이 가능하고, 전치 어구가 SAI를 제약하기 때문에 광의의 작용역이 부정일 때 전치사구를 따르는 휴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장 (41)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 어구가 문두로 전치될 때는 반드시 SVI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41) a. **In no time** there will be rain even there. (곧 ... 할 것이다)
 b. **Not long ago** there was rain falling. (얼마 전에)
 c. **Not much later** they arrived. (얼마후)
 d. **Not a few** authors criticized him severely, didn't they? (많은)

또한 다음의 (42)에서 볼 수 있듯이 문두에서 **only**로 시작되는 종속 접속사와 전치사구는 주절에서의 SAI를 필요로 한다. **only**는 형태적으로는 부정형이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부정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42) a. **Only after the phone rang** did I realize that I had fallen asleep in my chair.
 b. **Only in my hometown** do I feel at ease.
 c. **Only his mother** will he obey.
 d. **Only on weekends** did I see those students.

3) 운용소(operator), 부정어, 의문사 등이 통사적, 의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

위를 작용역이라고 한다.

Jespersen(1965: 64)은 so, neither 또는 nor가 전치된 경우에도 SAI가 발생하는데, so나 neither와 같은 단어들의 전치는 SAI를 수반하고 주어·동사 어순과 동사·주어 어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 문장 (43)을 살펴보자.

- (43) a. He is rich.
b. **So** he is. (This means that he is rich. He refers to the same person.)
c. **So** is she. (This means that she is rich. The richness applies to someone else (=she)).
d. I don't believe he is rich.
e. **Neither** he is.
f. **Neither** is she.
g. He can not do it, nor can I.
h. I don't know, **nor** do I care.

위의 예문 (43b)와 (43e)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의 견해에 동의를 표하는데 사용되는 so, neither 구문에서는 정상 어순을 취한다.

유도부사 there의 전치에 의한 SVI의 경우도 있는데, there 구문의 중요한 용법은 비한정적인 사물의 존재를 도입하는데, 존재를 나타내는 there 구문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be 동사, 상태 동사(예를 들어, live, remain, stand, lie 등), 기동 동사(예를 들면, emerge, spring up, arise, rise, ensue, result 등), 그리고 동작 동사(예컨대, come, arise, enter, pass 등)가 있다.⁴⁾ 아래의 문장 (44)에서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다.

- (44) a. **There** are numerous species at edible fungi.
b. **There** exists a good argument for that.

4) 문법 학자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다르다. Jespersen(1924)은 Dummy There, Empty There 라고 하고, Curme(1931)은 Anticipatory There라고 하며, Quirk 등 (1985)은 Existential There라고 칭하고 있지만 모두가 도치를 야기시키는 there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c. **There** arose a controversy on that subject.

d. **There** seldom passed much talk between them.

그러나 위의 예문처럼 존재와 관련 있는 동사를 *there*와 같이 쓸 수 있지만, 문장 (45)의 경우처럼 존재와 관련이 없는 다른 동사들은 *there*를 취할 수 없다.

(45) a. ***There** sang popular singer a new song.

b. ***There** left early three quests.

3. 주어-동사 도치의 화용적 특성

본 장에서는 의사 소통의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정보 구조를 분석 검토한 후, 정보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순이 바뀌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기능문법에 근거하여 어순에 관한 연구를 한 Quirk 등(1985), Birner(1994) 및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화용적 관점에서 정보 구조상의 화제화와 초점화에 따른 SVI 구문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정보 구조

화자는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언어 표현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명제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 통사적으로나 음운적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통사 규칙이나 의미 규칙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 기능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본 절에서는 어순의 도치가 의사 소통 과정에서 화자가 선택하는 정보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며 청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태를 바꾸면서 담화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종류에는 현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보편적 정보,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상황적 정보, 발화가 진행되면서 발화의 전후 맥락에 의해서 전달되는 맥락적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시 청자와 관련하여 신정보와 구(또는 주어진)정보로 구별된다.⁵⁾ 화자는 발화를 통해서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여 청자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모습을 수정하거나 첨가시키려고 한다. 구정보는 발화시에 전제의 형태로 이미 청자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지식의 총체인 반면에 신정보는 발화 그 자체에 의해 청자가 가진 기존의 지식에 변화를 주거나 첨가되는 정보이다.

5) 신/구정보의 분류의 기준은 학자에 따라 예측 가능성, 복원 가능성, 현저성(saliency), 공유 지식(shared knowledge), 친숙성(familiarity) 등 다양하다.

이제 정보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텍스트에서 송신자는 자신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신자의 세상 지식, 믿음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하면서, 송신자는 수신자의 어떤 가정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화를 다듬게 된다. 이 때 송신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화용적인 관점에서 ‘정보 구조’라는 용어로 많은 학자들이 다루어 오고 있다.⁶⁾

Levinson(1983: 373)은 “정보 구조는 이동 규칙이라 불리는 많은 통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혼동과 애매함을 줄여 주며 언어 연구에서 형식과 기능의 차이를 줄여 준다”고 하고 있다. Prince(1981: 224)는 정보 구조를 ‘정보 꾸러미’로 지칭하면서, 정보 꾸러미는 특정한 청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기 위해 화자가 발화를 재단하는 것으로서, 즉 자연 언어에서 정보 꾸러미는 청자의 가설, 믿음, 그리고 전치 요소에 대해서 화자의 가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구조는 화자와 청자의 가정된 심적 상태에 근거하여 발화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정보 구조를 Lambrecht(1994: 5)는 다음 (46)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46) Information Structure: That component of sentence grammar in which propositions as conceptual representations of states of affairs are paired with lexico grammatica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mental states of interlocutors who use and interpret these structures as units of information in given discourse contexts.

즉 정보 구조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어휘나 문법 구조를 정보 단위로서 사용하고 해석하는 담화자들의 심적 상태와 보조를 맞추면서, 사태에 대한 개념적 표상인 명제(즉 담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가 어휘나 문법 구조와 함께 짝을 이루게 되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 구조는 담화에서 명제를 화용적으로 구조화하는 형식적

6) ‘정보 구조’란 용어는 Halliday(1967)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후 많은 언어 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표현이며,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 구조가 다르다”고 말할 때는 의미상으로는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나 화용적으로는 다른 변이문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⁷⁾ 즉 주어진 명제를 표시하기 위해 활용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변이문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화제는 담화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로서 많은 학자들이 실체와 명제 사이의 ‘언급의 대상(is about)’이 되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⁸⁾ 이런 점에서 화제는 통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가 발화를 하는 그 당시의 환경과 같이 관련되어 있으며 맥락과 연결되어 배경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담화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고전적인 담화 화제는 제목이나 그림 설명이 되는데, 이들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과 사전적 정보에 접근하게 해주며, 강세를 받지 않고서 발화의 앞쪽에 나타나는 문장 화제들의 기능도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화제는 관련성의 기본적인 개념과 연관된다. Brown & Yule(1983: 68)은 화제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관련성 및 일관성(coherence)에 필수적인 개념”이라 하고, Sperber & Wilson(1995: 216)은 화제를 “화자가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의 부분집합으로서 발화 맥락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을 지닌다”고 했다. 한 발화가 단일 맥락과 사전적 항목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동질적 맥락에서 관련성을 지닌다면, 그 발화는 화제와의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 화제는 순전히 그 맥락과 사전적 항목과 연계되는 개념적 표제이기 때문이다. 담화 텍스트에서 어떤 구성 요소를 담화 화제로 결정하게 될 때는 그 화제는 관련성을 지녀야 하며 그 텍스트 내에 함축된 담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Anderson(1977: 372)은 다음에 제시되는 예문 (47)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7) 변이문간의 대조는 수동문 대 능동문, 표준문(canonical) 대 화제문, 표준문 대 분열문, 주어 중심문 대 서술어 중심문, 표준문 대 도치문 등이 있다.

8) van Dijk(1977), Reinhart(1982), Lambrecht(1994) 등은 ‘화제란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47) Rocky slowly got up from the mat, planning his escape. He hesitated a moment and thought. Things were not going well. What bothered him most was being held, especially since the charge against him had been weak. He considered his present situation. The look that held him was strong, but he could break it.

위의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화제가 아주 다르게 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맥락은 Rocky는 죄수이며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의 자물쇠를 깨고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의 화제는 '감옥을 탈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죄수'가 될 것이다. 다른 가능한 맥락은 Rocky는 레슬링 선수이며 시합 도중에 상대에게 붙잡혀 있으며 거기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의 화제는 '막다른 구석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될 수 있다. 위의 (47)은 화제란 텍스트가 제공하는 맥락에 의해서 관련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며 아울러 화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맥락이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van Dijk(1981: 178)은 담화 화제를 텍스트에 의해 전달되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조건으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에 근거를 둔다고 정의하면서 다음의 (48-50)을 예로 들고 있다.

(48) What is the story about?

(49) Eva awoke at five o'clock that morning. today she had to start with her new job in Prague. She hurriedly took a shower and handsome breakfast. The train would leave at 6:15 and she did not want to come late the first day. She was too nervous to read the newspaper in the train. Just before eight the train finally arrived in Prague, and the office she had found the job in only a five minute walk from the station.

(50) a. What did the girl do?

b. Eva took the train for Prague and started her new job.

Van Dijk는 화제를 위의 (48)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하며 화제를 '의미적 정보를 전체적으로 구성해 주는 대명제(macro-proposition)'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의 (49)의 화제는 (50a)가 언급하는 내용인 (50b)와 같은 대명제가 된다.

단일 화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단일 문장에서조차도 당장의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놓이는가에 따라 어떤 성분이 그 문장에서 화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인 주부·술부 구조를 지닌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는 화용적 맥락에 따라 청자에게 여러 가지 의도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다음 발화를 살펴보자.

(51) The chief arrested a suspect.

위 (51)에서 주어 NP인 the chief가 화제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담화에 나타난 명제가 경찰서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화용적인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주어 NP가 지시하는 경찰서장이 담화에서 당장 '관심의 대상'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자는 화자가 진술할 때 화자의 의도를 맥락을 통해 복구해야 한다. 맥락의 중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의 (51)을 아래의 (52)와 같은 질의·응답의 맥락으로 구성하여 보자.

- (52) a. What did the chief do then? -- The chief arrested a SUSPECT.
b. Whp arrested a suspect? -- The CHIEF arrested a suspect.
c. What happened? -- The CHIEF arrested a SUPECT.
d. Sue watched television that morning. After the chief arrested a SUSPECT, she calmed her agitated breast.

위 (52a-d)에서 (52a)는 주어 NP인 the chief의 지시물이 그 발화가 언급하는 대상이며 따라서 NP인 the chief는 그 발화의 화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NP인 the chief는 화용적 맥락에 의해서 (52a)에서 '경찰서장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고 당장의 관심사에 대해서 적절한 진술로 의도된 것

이기 때문이다. (52b)의 맥락에서 (52b)의 응답 부분은 경찰서장에 대한 진술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선 의문문의 어구 who로 개방되어 있는 변항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단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52b)의 맥락에서는 NP인 the CHIEF는 화제가 아니라 특수형의 초점인 ‘논항 초점’이 된다.⁹⁾

한편 (52c)의 맥락에서는 (52c)의 응답 부분은 의문 어구 what에 대한 응답으로 동사 happen과 관련된 ‘사건 보도(event-reporting)’ 유형의 발화이다. 즉 이 발화는 경찰서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청자에게 ‘발생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52d)의 맥락에서는 NP인 the chief가 문장의 화제가 아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NP인 the chief가 화제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유는 (52b-c)에서처럼 NP인 the chief가 초점이거나 초점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발화 (51)은 (52d)의 전체 담화에서는 단지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의 담화는 다른 어떤 화제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Sue를 지칭하는 주어 she가 그 화제이다. (52d)의 맥락에서는 부사절 After the chief arrested a suspect는 Sue에 관한 단언에 필요한 시간대를 형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배경 정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배경 정보는 스스로 화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화제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는 맥락을 조성한다. 그리고 배경 정보 내에 존재하는 arrested a suspect는 경찰 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요구하는 화용적 전제의 일부로서 취급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에서 화제는 단순히 통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담화 맥락에 의해 선정되며, 이렇게 선정된 화제는 담화의 주관심사가 되는 배경

9) 초점을 화용적 전제와 단언이 차지하는 통사적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문장 내의 어느 특정 논항만이 초점의 영역이고 나머지 모두가 전제인 경우를 논항 초점이라 한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A :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B : My CAR broke down.

위의 예문에서 B의 My CAR는 화제가 아니라 A의 your motorcar에 상응하는 신정보로서 논항 초점이 된다(Lambrecht 1994: 223).

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명제가 되어 담화의 방향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제 담화 화제와 더불어 정보 구조의 중요한 요소인 담화 초점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초점의 개념을 다룰 때 정보 구조와 관련하여 전제와 단언의 영역을 먼저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Lambrecht(1994: 213)는 초점을 다음(53)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53) Focus: The semantic component of a pragmatically structured proposition whereby the assertion differs from the presupposition.

즉 초점은 단언이 전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를 화용적으로 구조화시킨 의미 성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초점’의 기능은 신정보의 전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Halliday(1967: 204)는 “초점이란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앞선 담화로부터 재생될 수 없는 것으로 화자가 생각한다는 점에서 신정보인 것으로서 발화의 초점은 화자가 새로운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맥락이나 상황으로부터 유도될 수 없는 정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Büring(1997: 29)은 “초점은 문장 내에서 새로운 것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점의 성격을 담화 초점에 두며 대화 맥락을 통해서 초점의 기능과 유형을 살펴보자.¹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하나의 성조(tone) 단위 내에서는 주로 문미에 위치하는 단어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발화에서 화자는 초점 정보를 문미에 배치하고, 문두에는 정보 양이

10) 초점의 분류는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또는 화용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Selki가(1984)은 초점이 포함되는 구성 성분에 따라 ‘협2의 초점’, ‘술부 초점’ 및 ‘문장 초점’으로, Quirk(1985) 등은 초점을 핵음의 위치에 따라 ‘문미 초점과 대조 초점’으로 분류하고(송석만 1992: 32), Lambrecht(1994)는 문장 또는 명제에서 화용적 전제와 초점이 차지하는 통사 영역을 바탕으로 술어 초점, 문장 초점, 논항 초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고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배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자는 청자의 인지·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초점 부분에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여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초점을 강세 보유의 어휘 항목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초점은 대화 전후의 맥락에 의해서 주어지며, 초점은 강세가 주어지는 어휘보다 더 큰 구의 영역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 (54)를 살펴보자.

(54) John threw the BASEBALL.

위 (54)에서 우리는 보통 baseball을 초점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실제 언어 상황에서는 위의 (54)는 맥락에 따라 다음 (55)과 같은 초점 표시문 중의 하나가 된다.

- (55) a. John threw [the BASEBALL]F.
- b. John [threw the BASEBALL]F.
- c. [John threw the BASEBALL]F.

(55)에서 [...]F를 각각 초점으로 간주하게 될 때 (55a-c)의 초점은 각각 다르다. 즉 (55a)의 초점은 the BASEBALL이 되며, (55b)의 초점은 threw the BASEBALL이 되며, (55c)의 초점은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John threw the BASEBALL이 된다. 이와 같이 초점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Jackendoff(1972) 등이 사용한 질의·응답의 방법에 의해 밝혀진다. 즉(56a-c)는 다음 (56a-c)와 같은 의문문, 즉 각각 다른 맥락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 (56) a. What did John throw?
- b. What did John do?
- c. what happened?

이와 같이 위의 (54-56)에서 확인된 것처럼 초점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담화 맥락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강세가 부여된 문미 어구만이

초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Büring(1997)은 (55)에서 초점이 아닌 문장의 일부를 배경(background)이라 부르고 있다. (55a-b)에서 배경이 되는 것은 각각 John throw와 John이며, (55c)에서는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초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과 초점을 아래와 같은 이분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 | |
|-------------------------|---------------------------|
| (57) background | focus |
| topic | comment |
| (psychological) subject | (psychological) predicate |
| theme | rheme |
| presupposition | focus |
| given | new |
| old | new |

위의 (57)에서 Büring(1997)은 초점이란 전제를 보충해 주고 화제에 대한 단언 역할을 하며 청자가 모르는 신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 가를 고려하면서 정보 구조에 상응하는 ‘배경/초점 구조’란 용어를 사용하여 담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제 맥락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는 표현들을 살펴보자. 다음 (58)은 Brown & Yule(1983: 127)이 제시한 예문들로서 대체로 같은 인지적 의미를 지니며 같은 명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각 발화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 (58) a. John kissed Mary.
 b. Mary was kissed by John.
 c. It was John who kissed Mary.
 d. It was Mary who was kissed by John.
 e. What John did was kiss Mary.
 f. Who John kissed was Mary.

위 (58)의 여러 발화의 내용은 대체로 키스가 행해졌고 행위를 한 사람은 John이며 Mary는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이다. 형식주의자들은 이런 변이를 단순히 순수한 문체적 차이로만 간주하며 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지만 이런 변이가 실제 발화에서는 특정 맥락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의미의 차이가 있다. 즉 (58a)는 질문에 따라 초점의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앞서 제시한 (55)를 통해서 살펴봤다. (58b)에서 초점은 수동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초점은 John이 된다.

(58c-d)는 it-분열문을, (58e-f)는 wh-분열문을 사용하여 초점을 나타내고 있다. it-분열문의 경우엔 초점을 it와 that(who)-절 사이에 두고 전제를 나타내는 요소들은 that(who)-절에 배치한다. 그러므로 (58c)는 청자가 이미 누군가가 Mary에게 키스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John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58d)는 John이 누군가에게 키스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Mary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wh-분열문의 경우엔 전제 요소들을 wh-어구로 시작되는 선행절에 배열하고 초점을 문미에 놓는다. 따라서 (58e)에서 청자는 John이 어떤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상대자가 바로 Mary라는 것이다.

Büring(1997: 40)은 공유 바탕(common ground)과 관련하여 ‘초점/배경’ 구조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 (59) a. The focus/background structure gives us clues about the previous discourse or information state of the participants.
- b. The focus/background structure is determined by the previous discourse or information state of the participants.

위의 (59a-b)는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발화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공유 바탕에 근거하여 다른 공유 바탕을 사상하며, 한 공유 바탕에서 다른 공유 바탕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화는 공유 바탕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유 바탕은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초점이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의문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것은 의문문과 초점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다음(60)-(63)은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 (60) A: who threw the baseball?
 B: JOHN threw the baseball.
 B': #John threw the BASEBALL.¹¹⁾
- (61) A: What did John throw?
 B: #JOHN threw the BASEBALL.
 B': john thew the BASEBALL.
- (62) A: what did John throw?
 B: #John threw the OLD baseball.
 B': John threw the old BASEBALL.
- (63) A: Which baseball did John throw?
 B: John threw the OLD baseball.
 B': #John threw the old BASEBALL.

초점이 일반적으로 신정보를 전달한다고 주장할 때는 발화가 형성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맥락에 따라 초점이 반드시 신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64) A: Who did you visit, Ruth or Judith?
 B: I visited RUTH.

(65) JOHN insulted MARY, and then SHE insulted HIM

위의 (64B)에서 초점 RUTH와 (65)에서 초점 SHE나 HIM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어구이므로 신정보는 아니지만 선행되는 맥락에 의해서 (64)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하며, (65)에서는 대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초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64B)의 RUTH는 구정보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65)의 SHE와 HIM은 주어진 담화 지시물을 지시

11) 본 논문에서는 #는 통사적으로는 적형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맥락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임을 나타내며, *는 비문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데 맥락에 따라서는 용인 가능할 수도 있다.

하고 있으나, 이들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66)도 역시 초점이 신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다.

- (66) a. She hasn't married CHARLOTTE
- b. If GERDA would visit me!
- c. Even PETER forgot his bag.

(66a-c)에서 나타난 초점은 각각 단언 대 부정, 서법성, 초점 예시의 불변 화자(focus-sensitive particles)와 같은 요소들로서 단지 신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다. 즉 (66a)에서는 단지 그녀가 결혼을 한 사람이 Charlotte가 아닌 것을 부정하며, (66b)에서는 Gerda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나타내며, (66c)에서는 Peter를 강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Jacobs(1988)는 초점과 신정보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초점이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경우를 절대적 초점(absolute focus)으로, (64)-(66)와 같은 초점을 상대적 초점(relational focus)이라 부르고 있다.

요약컨대, 초점은 화자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며 제보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으로, 이때 초점은 담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며 맥락은 초점의 범위와 위치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제와 초점은 화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를 둘러싼 언어적/상황적 맥락에 따라 화자는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화제와 초점을 선정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게 된다.

3.2 화제화에 의한 주어 - 동사의 도치

담화의 일관성을 위해 화제화되는 화제 요소는 청자의 입장에서 구정보, 추론 가

능한 정보가 되는 것이 담화 연결 및 이해에 빠르다.¹²⁾ 따라서 화제화는 문맥적 요

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Birner(1994: 241)는 화제화되는 전치 어구는 문맥적 연결을 담당하기에 신정보가 될 수 없고 강세를 받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동사와의 결속력이 강한 주격 보어가 전치되어 화제화 될 때는 SVI는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아래 문장 (67)을 살펴보자.

- (67) a. Her oval face was especially remarkable.
- b. The sound of the bell grew faint.
- c. ?Especially remarkable her oval face was.
- d. **Especially remarkable** was her oval face.
- e. **Faint** grew the sound of the bell.

위 예문에서 (67a-b)는 보통의 어순을 가진 평서문이다. 동사 grew, was 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사 소통 역량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보어인 형용사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67c-d)처럼 문두로 전치될 때, 주어 - 동사의 어순을 갖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67e-f)처럼 동사 - 주어의 어순이 되어야 자연스러운데, 이는 주어인 her oval face, the sound of the bell이 문미 초점의 원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Ross(1967)는 문중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문두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화제화라고 한다.

a. This book, I really like.

b. I really like this book.

문장 a는 문장 b에서 this book을 문두로 이동시켜 화제화된 문장이다.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구정보가 주어가 되고, 신정보가 문미 초점을 받아서 문미에 위치하게 되는데, 신정보가 문두에 올 경우에는 도치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68)을 살펴보자.

- (68) a. **Great** was his joy when he heard the news of their success.
- b. **Happy** are those who knew the pleasure of making all people happy around.
- c.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 d. **So intimate** is the relation between a language and the people who speak it that the two scarcely can be thought of apart.
- e. **Sitting** at her desk in deep concentration was my sister.
- f. **Strange creatures** were women!
- g. **Traitor** he has become and **traitor** we shall call him.

위의 예문 (68)에서 보듯이 Quirk 등(1985: 1378)이 주장하는 것은 (68a)는 보어인 Great를 강조함과 함께 감정을 나타내는 주어 명사와 감정의 시발점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치이며, (68b)는 옛 영어에서 대명사 주어 바로 다음에 수식어구가 오면 의례적으로 도치되던 것이 남아 있는 형태로, 문미 중점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68c-d)는 대조를 뚜렷이 하기 위한 표현으로 두 개의 대조가 되는 말 사이에

평행(parallelism)을 맞추기 위한 도치로서 다소 수사적이며 격식을 차린 문체이며, (68e)는 현재 분사가 도치되었으며, (68f)와 (68g)의 경우에는 명사인 보어가 전치된 경우이지만 (68f)에서는 도치가 이루어지고, (68g)에서는 정상적인 어순을 하고 있는데, 이는 (68g)의 경우에는 주어가 대명사이어서 문미 초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치가 안 된다고 보며, 뒤의 traitor는 드물게 목적 보어가 전치되었으나 SVI는 일어나지 않고, (68f)에서는 strange creatures가 women보다는 신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보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술어의 핵심인 형용사와 연결 동사인 be 동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be 동사 자체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즉, 의사 소통 역량이 결여되기 때문에 접착성이 강해서 형용사가 전치될 때 be 동사도 함께

이동한다. 이는 Jespersen(1965: 54-59)의 접착력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 경우에 보어인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사와 형용사의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사도 형용사도 함께 전치된다. 우리는 다음의 예문 (69)에서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다.

- (69) a. The case is particularly interesting.
 b. ***Interesting** is the case **particularly**.
 c. **Particularly interesting** is the case.

위 예문 (69a)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순이고, (69b)의 경우에는 술어의 핵심인 interesting이 전치되어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이루어졌으나, 부사인 particularly가 형용사와 같이 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69c)와 같이 되어야 정문이 된다.

아래 문장 (70)에서처럼 이러한 구조를 Birner(1994: 241)는 형용사가 홀로 전치되는 것이 아니라 부사와 같이 전치되어 SVI를 유발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 (70) We have complimentary soft drinks, Sanka, tea, and milk,
Also complimentary is red and white wine. We have cocktails
 available for \$2.00.

그러나 Birner & Ward(1992: 28)는 같은 화제화된 어구라도 문장 (71a-b) 동사의 의미적 특성 및 문장 (71c-d)의 후치 주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 (71) a. **Criticized** often for drunkenness *is/ was John Smith*.
 b. ***Criticized** often for drunkenness *gets/ got John Smith*.
 c. **Sleeping** in the corner *stood two medical students*.
 d. **Sleeping** in the corner *stood an old graymare*.

장소나 방향 부사류의 화제화에 의한 도치도 일어나는데 문맥적 연결을 위해 전치되는 장소나 방향 부사류는 동사와의 결속력에 따라 장소·방

향·시간 부사류의 순을 보이며 SVI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Quirk 등 (1985: 522)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어구가 문두에 위치함으로써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있는데,¹³⁾ 이 경우는 부사를 전치시켜 강조하기 위한 문체적 도치라고 한다. 다음 문장 (72)에서 장소 부사구가 문두로 전치되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72) a. **Below** is a restaurant.
 b. **Ahead** sat an old man.
 c. **In the doorway** stood my brother.
 d. **On the very top of the hill** lives a hermit.
 e. ***In the doorway** saw me my brother.

이러한 장소 부사의 전치에 의한 도치에서, 장소 부사가 전치될 때는 동사는 반드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동사에는 be, stand, sit, lie, hang, depend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이어야 한다. 예문 (72e)의 경우에는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Quirk 등(1985: 521)은 위의 도치와 같은 경우에는 화제화된 장소 부사와 존재 동사 사이에는 접착력이 매우 강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상기 예문의 경우에 주어가 문미로 이동한 것은 문미 초점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핵심 술어와 동사 사이의 접착력도 그 원인이 된다. 다음 문장 (73)를 살펴보자.

- (73) a. **In the nursery** *the children were* playing happily and noisily.
 b. **Outside** *children were* jumping and skipping.

13) 문장 속에서 주어 이외의 어떤 요소가 주제화되어 문두로 이동하는 것을 주제화 이동이라 하며, 흔히 도치의 원인이 된다. Quirk 등(1985: 1377)은 주제화 이동하는 이유는 문맥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에 반항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치된 요소는 강한 강세를 받는다.

위의 예문 (73a)에서는 SVI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be 동사가 존재 동사가 아니라 연결 동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동사의 역할은 분사인 playing jumping, skipping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 부사가 문두로 이동되었을 때 도치가 되는 원인은 화제화, 초점화 이외에도 존재 동사와 장소 부사 사이의 접착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Quirk 등(1985: 522)은 방향 부사 화제화에 의한 도치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를 문두에 둬으로써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로, 부사를 강조하기 위한 문체적 도치이다. 이 경우에는 문미로 이동하는 주어는 문미 초점을 받게 된다. 아래 (74)의 예문들을 보자.

- (74) a. **Down** flew the jet.
- b. **Away** goes my chance of winning!
- c. Ah, **here** comes somebody-at last!
- d. **Along the road** rolled the wagons.
- e. **Over the bridge** marched the soldiers.
- f. **Into the house** ran John.
- g. **Up** drove some man in a new car.
- h. **Out** walked Mary.

위의 예문(74)에서와 같이 방향 부사가 화제화되어 문두에 와서 SVI를 이끌 경우에 이 구조에 쓰이는 동사는 반드시 자동사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어야 한다. 그러한 동사에는 flow, go, come, roll, march, run, walk, enter 등이 있다. 방향 부사의 화제화에 의한 도치는 장소 부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동작 동사와 방향 부사 사이의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향 부사가 전치될 때, 동작 동사도 주어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래 (75)에서처럼 강조를 위해 장소나 방향 부사류를 화제화함으로써 SVI가 이루어진다고 Birner(1994: 238)는 주장한다.

(75) As the skipping rope hit the pavement, so did the ball. As the rope curved over the head of the jumping child, the child with the ball caught the ball. **Down** come the ropes. **Down** came the balls.

그러나 다음 (76)에서처럼 장소나 방향 부사류가 화제화 될 때는 SVI는 임의적이다.

- (76) a. **Near him** John sat.
b. **Near him** sat John

위의 예문 (76)을 통해 방향이나 장소 부사류의 화제화는 SVI를 유발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며, 단지 생동감 있는 문장을 위한 강조적 도치임을 알 수가 있다. SVI를 촉발하는 원인은 방향 부사류의 화제화가 실행된 후 화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을 분열문으로 나타내면 이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

- (77) a. It was near him that John sat.
b. It was John that sat near him.

(76a)를 분열문으로 나타낸 (77a)에서는 장소 부사인 *near him*이 강조되고 있고, (76b)를 분열문으로 나타낸 (77b)에서는 John이 강조되고 있다. 장소 부사나 방향 부사가 전치됨으로써 만들어지는 SVI의 경우에 Quirk 등(1985: 522)은 주어가 명사나 부정 대명사가 아닌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SVI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문미 초점, 문미 중점의 원리상 정보 가치가 적은 대명사가 초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문미 초점의 원리가 접착력의 원리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사는 자동사로서 단순 현재나 단순 과거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며, 조동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 (78)를 살펴보자.

- (78) a. **Down** they flew.
 b. **Away** he goes.
 c. ***Up the hill** has been climbing my brother.
 d. ***Down** the car broke.

위의 예문 (78a-b)는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도치가 안 되었고 예문 (78c)의 경우에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도치가 되면 비문이 된다. 예문 (78d)의 경우에는 Down이 부사가 아니라 동사구의 일부이므로 비문이 된다.

Leech & Svartvik(1975: 178)도 장소 부사와 방향 부사의 화제화에 의한 SVI가 일어나는 조건을 동사는 단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고, 위치의 자동사 또는 이동의

동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장 (7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구문에서 중요한 요소는 장소 및 방향의 부사이다.

- (79) a. **Away** went the car like a whirlwind.
 b. **Down** came the train in torrents.
 c. Jenny was taken aback by some of the portraits we passed by At the end of the long row of portraits, and just before on turns into the library, stands a glass case. **In the case** are trophies. Athletic trophies.

Birner(1994: 241)는 아래 문장 (80)에서처럼 또한 앞 문장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앞 문장과 관련이 있는 의미 내용을 가진 동사구를 문두로 전치시킴으로써 SVI가 발생한다고 한다.

- (80) Evans is a Democrat; Daley is a Democrat. Different Democrat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about the city of Chicago and its politics. Jackson noted. The war between forces within the party continues, and within our coalition. Standing in the middle of it all is Jesse Jackson.

Green(1980: 590)은 아래 (81)에서처럼 강조 및 대조적 의미를 위해 화제화되는 목적어는 주어와 목적어간의 격 표시가 없어서 (81a-b)에서처럼 SVI가 일어나지 않지만, 인용문을 강조하기 위해 문두로 전치시킬 때는 (81c-d)에서처럼 SVI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 (81) a. **The play** John saw yesterday.
 b. **The past** we can know, but **the future** we can only feel.
 c. "The newspaper is late again," John said.
 d. "The newspaper is late again," said John.

Zandvoort(1975: 239)는 강조를 위해서 목적어가 전치되더라도 도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much, many와 같은 강조적인 말이 목적어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도치가 된다고 말한다. 다음 아래의 (82)를 살펴보자.

- (82) a. ***A rabbit** had he snared.
 b. **Many a rabbit** had he snared, without the gamekeeper noticing it.

위 (82a)는 부정 어구와 강조의 many, much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고, (82b)의 경우에는 정문이 된다.

Jespersen(1965: 70)은 아래 (83)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 전치에 의한 도치는 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 도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이며 고풍적(archaic)이다.

- (83) a. **This state of mind** was I in.
 b. **Nothing** of that sort do I pretended to.
 c. **Many a family party**, consisting of a man, his wife and something one or tow their children, have I listened to.

Quirk 등(1985:790)은 단순 목적어 화제화에 의한 도치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와 운용소가 도치되며, 이 점이 인용 목적어 화제화에 의한 도치

와 다르다고 주장한다.전자의 경우에는 대개 부정 어구가 수반되며, 부정 어구는 단순히 목적어만을 부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와 운용소의 도치가 이루어진다. 본 동사가 도치하지 않는 이유는 전치된 목적어와 본동사 사이의 접착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3.3 초점화에 의한 주어-동사 도치

초점은 어떤 특별한 실체 또는 실체의 속성이나 특질 또는 그것의 가치를 나타내는 문맥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나 두드러진 요소이다. 따라서 화자는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가치가 높은 초점 요소를 문미에 둔다. 이를 문미 초점이라고 한다. 문미 초점의 주된 이유는 문장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즉, 문장의 명료성의 확보에 있고 이 외에도 문장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앞 문장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대조를 위한 경우도 있다. 이 문미 초점 위치는 다음 (84)에서처럼 강조나 대조를 위한 화자의 담화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문미 초점 위치에 없는 여격 명사는 대조적 기능을 할 수 없다.

- (84) a. *Give a book to John (not BILL).
 b. *Give JOHN the book (not BILL).
 c. Give JOHN the BOOK (not the PEN).

여격 이동에서도 문장 내적 요인이 제약으로 작용한다.

- (85) a. *John gave the dong it.
 b. Bill sent a package to London.
 *Bill sent London a package.
 c. We sent/transferred some stock to Bill.
 we sent/*transferred Bill some stock.

길고 복잡한 명사구가 문미에 위치해서 초점을 받는 경우에 명사구는 주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치 구문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미 초점, 문미 중점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문장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즉 명료성의 확보에 있다. 이외에도 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 문장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되는 이유도 있다. 다음 (86)를 살펴보자.

- (86) a. **Before them** lay miles and miles of undulating moors.
 b. **Lower and lower** bent Uncle Charlie's head over his plate.
 c. **Out** rushed An and his wife.
 d. **In the gap** were the footprints of the sheep.
 e. **Such** was the accommodation offered by the white House.
 f. **So high** did prices rise **that** many people could no longer afford the necessities of life.
 g. **Lower and lower** he bent.
 h. **Out** he rushed.

상기 예문 (86a-f)에서처럼 Zandvoort(1975: 238)는 주부가 술부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문미 초점을 받기 위해서 도치가 되었으며, 동시에 전치된 요소는 종종 감정적인 강조(emotional emphasis)를 받는다고 한다. 예문 (86g-h)의 경우에는 주어가 대명사이어서 문미 초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치가 될 수 없다.

Levin(1983: 18)이 제시한 다음의 (87)에서 주어 이외에도 무거운 목적어(heavy object)의 문미 이동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함을 볼 수 있다.

- (87) By taking into account, not only the meaning of U, but also the precise mechanism(like irony, or general assumption of a certain level of implicitness) which may cause a divergence between the meaning of U and what is communicated by the utterance of U in a particular context.

이 표현을 By taking + Object + into account라고 표현한다면 상당히 난해한 문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거운 명사구인 경우에는 문체상, 담화의 편의상 도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there는 부사이면서 일반 부사와는 달리, 흔히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구문에서, 본래의 장소적 의미를 잃고 강세를 받지 않으며, 주어가 놓이는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주어를 문미로 이동시킨다. Jespersen(1965: 107-111)은 이런 there를 장소 부사인there와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했다. 먼저 아래 (88)에서 볼 수 있듯이 there는 장소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장소 부사나 기타 다른 부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 (88) a. But **there** is no one **there**.
b. **There's** some magazines **here**.

그리고 there는 (88)에서처럼 부정사 구문, 분사 구문, 동명사 구문, 부가 의문문에서 유사 주어(quasi-subject)의 역할을 수행한다.

- (89) a. I don't want **there** to be.
b. It was impossible for **there** to be.
c. And I, **there** being none to settle the difference, must reproduce both versions.
d. ... account for **there** being something rather odd.
e. There is nothing funny about him, is **there**?

어떤 경우에 there는 (90)처럼 복수의 주어에서도 There is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구어체이다.

- (90) a. **There** is but we two.
b. In the intervals, Walter darling, **there's** you.

또한 (91)에서처럼 there가 이끄는 문장에서 어순은 항상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91b)에서는 there가 장소 부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 (91) a. **There** is nothing wrong.
 b. **There** nothing is wrong.

there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 (92)을 살펴보자.

- (92) a. A new trend of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appears.
 b. **There** appears a new trend of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c. A gentleman from Verona passes in the square.
 d. **There** passes a gentleman from Verona in the square.

상기 (92a)예문에서 A new trend ...가, (92c)에서는 A gentleman ...이라는 주어가 강조되기 때문에, 즉 문장의 초점을 받기 위해 문미로 이동하고 이 때문에 there-삽입(there-insertion)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92b)와 (92d)가 표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there 삽입에 의한 도치는 초점화에 의한 도치이다.

there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의 차이는 주어인 NP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장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Bolinger(1977: 94)는 there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주는, 다시 말하면 어떤 단편의 지식을 의식속으로 제시하여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의 (93)를 살펴보자.

- (93) a. Across the street **there's** a grocery.
 b.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위 (93a)는 식료품점이 길 건너에 있다는 사실(지식)을 의식하게 된다는 뜻이 되어서 현장에 없으면서도 말할 수 있으나, (93b)에서는 물리적으로 또는 그림으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에 식료품점이 길 건너에 존재한다라는 뜻이 된다. 결론적으로 there가 들어 있는 문장의 내용은 추상적인 지식이나 정보이어야 한다. 다음 (94)에서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 (94) a.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b.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there's** a grocery.
 c. As you can see,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d. *As I can see that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e. I can see that across the street **there's** a grocery.

위 (94)에서 there가 포함된 (94b)와 (94e)는 정문이 되고 (94a)와 (94d)는 비문이 된다. 그리고 As you can은 그 다음에 오는 내용이 물리적 또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94c)는 there가 없어도 정문이 된다.

Jespersen(1965: 110)도 there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chief use of THERE-sentences is to denote the ore or less vague existence of something indefinite.

즉 there 구문의 주요 용도는 비한정적인 어떤 것의 모호한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Quirk 등(1985: 1408)은 이때의 동사는 원칙적으로 존재 내지는 출현 동사이어야 하며, 이런 동사는 자동사이고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동사는 be 동사 이외에 live, remain, stand, lie와 같은 상태 동사와 emerge, spring up, arise, ensue, rise, result와 같은 기동(inception) 동사와 come, arrive, enter, pass와 같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몇 개의 예를 들면 다음 (95)과 같다.

- (95) a. **There** rose in his imagination grand visions of a world empire.
 b. **There** exist a number of similar medieval cross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c. Not long after this, **there** occurred a sudden revolution in public taste.

술부의 한 성분이 주제화 및 화제화 된 후 SVI를 통한 주어의 초점화가 일어난다.

술부의 한 성분이 주제화된 후 문장 내적 용인에 따라 SVI를 통한 초점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지만, 화제화에 따른 초점화는 필수적이지 않아 화자의 초점화의 의지에 따라 SVI는 임의적으로 일어난다.

- (96) a. ***Conspicuously absent** become Mary.
b. **Down the stairs** has fallen the baby.
c. ***Onto the track** ran the jockey the horse.

그러나 화제화는 주제화에 비해 화자의 의지에 따라 SVI가 임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지만 Levin(1993: 211)과 Coopmans(1989: 737)는 다음 (97)에서 보듯 화제화 후에 도치된 문장이 정문이 될 수도, 비문이 될 수도 있어 모순을 갖고 있다고 한다.

- (97) a. **Into the room** strode Robin boldly.
b. ***Into the room** strode boldly Robin.
c. ***With great care** walked John into the room.
d. **With great care** John walked into the room.

또한 Birner(1994: 236)는 (98)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화에서도 도치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한다.

- (98) The Point of transformations is to change a base from into a specific structure. **Into this derived structure**, then lexical items are inserted.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치되는 성분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술부의 한 성분이 전치될 때는 문장 내적 요인이 제약으로 작용하여 그 정도에 따라 도치/비도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술부의 성분이 도치가 될 때는 위의(97d)와 같은 화제화와 (98)와 같은 주제화가 발생하여도 SVI는 일어나지 않는다.

Birner(1994: 76)와 Levin(1993: 211)은 주제화 및 화제화에 의해 술부의 성분이 전치됨으로써 도치가 이루어 질 때, 아래 (99)에서처럼 주어인 명사구는 동사구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 (99) a. ***Beside him** sat his mother during the ceremony.
 b. **Beside him** sat during the ceremony his mother.
- (100) a. **In front of us** walked Dana proudly.
 b. ***In front of us** walked proudly Dana.

화자가 담화에서 there 구문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표 화제인 주어 강조를 위한 문미 초점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사건, 사물의 출현이나 또는 새로운 장면을 소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there 구문에 사용된 주어 명사구는 신정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Bolinger(1977: 155)와 Quirk 등(1985: 1404)은 (101)에서처럼 구정보에 해당하는 한정명사구나 전치된 명사구라도 청자에게 어떤 것을 의식 속에 다시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면 의미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되어 신정보로서 there 구문에 쓰일 수 있다고 한다.

- (101) a. I would say let's take our vacation this month, but **there's** John to consider. And **there's** the election to keep in mind.
 b. Is there anyone coming to dinner?
 Yes, **there's** Harry and **there's** also Mrs. Jones.

Milsark(1977: 11)와 Stowell(1978: 460)은 아래 (102)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there 구문에는 실체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바뀔 수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서술 형용사는 허용되어도 실체의 속성을 표시하는 서술 형용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102) a. ***There** are linguists **intelligent**.
 b. ***There** was a man **tall**.

Quirk 등 (1985: 1403)과 Bolinger(1977: 96)는 (103)에서 there 구문은 제시적 기능(presentative function)을 위해 사용되기에 존재 및 장소의 의미를 함축하는 동사들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103) a. **There** exist a number of similar medieval crosses in different part of the country.

b. **There** was approaching a weird procession.

Coopmans(1989: 748)와 Birner(1992: 43)는 대개 there 구문은 화제화 및 주제화에 의한 특정 어구의 문두로의 이동 없이 나타나지만, (104)에서처럼 주제화 및 화제화 후에도 주어 명사구가 제시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104) a. **Down the stairs** there rolled a ball.

b. **Into the room** (*there) ran Mother.

5. 결론

의사 소통의 과정에서 화용적 맥락에 따라 통사적 구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이들 중 주어·동사의 정상적인 구조를 동사·주어의 어순으로 도치시키는 요인과 그로부터 오는 통사적 및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2.1에서 도치란 술부에서 (조동사를 포함해서) 주동사를 뺀 나머지 부분을 동사 앞으로 보내고, 주부를 주동사 뒤에 위치시키는 구문으로 정의하여, 도치의 유형을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는 SAI와 주어와 주동사가 도치되는 SVI로 분류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보았다. 2.2에서는 SVI의 요인을 전치사구의 전치, 주격 보어나 목적어의 전치, 그리고 부사 어구 전치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전치사구의 전치에 의한 도치는 부사 또는 전치사가 맨 앞에 올 때 대부분의 경우 동사·주어 어순이다. 또한 out, up, down, away, over 등이 전치될 때 어순은 상대적 무게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장소 부사가 전치된 도치 구문의 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be, sit, stand, lie, hang, depend 등의 자동사이며, 방향 부사가 전치된 경우에는 전치된 방향 전치사와 종종 관련되는 문체적 도치이며, 이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는 enter, walk, come, go, fall 등으로 대개 행동을 나타낸다. 장소 및 방향 부사 전치는 주어가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일 때 SVI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가벼운 요소는 중앙에 두고 무거운 요소는 주변 자리에 놓는 상대적 무게의 원리와 일치한다. 장소 및 방향 부사 전치에 의해 SVI가 일어나는 경우에 도치 구문의 동사는 단일 어휘 동사로 구성되고, 이 경우의 동사는 위치의 자동사인 be, stand, lie 등 또는 이동의 동사인 come, go, fall 등이어야 한다. 시간 부사 등이 전치된 경우에도 SVI가 일어난다. 이때 술어는 반드시 장소나 시간의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취하는 자동사만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장소나 방향의 전치사구를 제한하는 전치사들인 among, at, in, on, across, down, from 등이 있다.

보어의 전치에 관한 것으로 보어로 쓰인 단순 형용사, 현재/과거 분사가 전치되어 SVI를 유발하는 경우로, 이 경우는 전치된 보어가 분사 및 형용

사인 경우와 명사구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분사의 전치에 의한 SVI는 종속절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어의 전치는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동사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동사에는 add, connect, depart, dominate, extend, lead, lie overlook, operate, recall, reflect, rise, stand, support, surround, survive, tower, underlie 등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전치된 구와 동사가 처소성을 나타내거나 함의하는 전치에 국한된다. 또한 보어의 전치에 있어서 문두에 원형 동사, to 부정사, 단순형 또는 완료 시제형의 형태는 올 수 없고 ~ing(미완료상), (not) to be -en 형태만이 전치 가능하다. 보어로서의 형용사구가 전치되는 것은 전치된 형용사구가 담화상으로 뒤에 있는 명사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치된 형용사구에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구와 의미상으로 관련된 수식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격 보어나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의 도치로서, a(n)/another 등의 비한정 한정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전치되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주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한다.

부정 요소를 정상적인 위치에서 맨 앞의 위치로 이동할 때, 전치된 부정 요소는 쉽표 없이 주절에 연결되며 이때 SVI가 발생한다. 술부의 일부로 사용된 직접 화법의 인용문이 전치된 경우에 SVI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구조적으로 전달문은 직법 화법에서 평안절(comment clause)로 분류되며, 전달문은 피전달문의 앞, 중간, 또는 뒤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전달문의 전치에 의한 도치는 전달 동사가 said, asked, whispered, suggested 등이고, 이 전달 동사가 전달문의 중간에 있을 때 가장 흔하지만, 전달문의 주어가 대명사일 때 도치는 흔하지 않다는 것을 봤다.

부사어구 전치에 의한 도치는 out, then, next 등과 같은 장소의 부사의 전치로 인해서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유발되는 경우로, 이 경우 보사는 동사구 수식어로 쓰인 Thus/ So(=in this way, in this manner) 등에 한정된다. seldom, rarely, scarcely, hardly, never, no sooner, not only, not until, only after, nowhere, not even, at no times, in no way, barely, under no circumstances 등의 전치된 부정 요소들이 쉽표 없이 주절에 연결되는 경우에 SAI가 발생한다는 것을 봤다. not just/only/merely/simple 등의 제한어구는 초점 종속어(subjuncts)로서 SAI 구조를 갖는 맨 앞의 not을 강조하는 통사적 자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정 어구를 갖는 문장이 중의적일 때는 어순에 의해 그 중

의 성이 해결된다. so, neither 또는 nor가 전치된 경우에도 SAI가 발생하는데, so나 neither와 같은 단어들의 전치는 SAI를 유발한다. 유도 부사 there의 전치에 의한 SVI의 경우도 있는데, 존재를 나타내는 there 구문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be 동사, 상태 동사 live, remain, stand, lie 등, 기동 동사 emerge, spring up, arise, rise, ensue, result 등, 그리고 동작 동사 come, arise, enter, pass등이 있다.

3장에서는 정보 구조를 분석 검토한 후, 정보전달이라는 화용적 관점에서 정보 구조상의 화제화와 초점화에 따른 SVI구문이 갖는 특성을 살펴봤다. 3.1에서는 정보 구조를 담화에서 명제를 화용적으로 구조화하는 형식적 표현이며,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3.2에서는 화제화에 따른 주어·동사의 도치를 살펴봤는데, 화제화되는 전치어구는 문맥적 연결을 담당하기에 신정보가 될 수 없고 강세를 받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동사와의 결속력이 강한 주격보어가 전치되어 화제화 될 때는 SVI는 필수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문맥적 연결을 위해 전치되는 장소나 방향 부사류는 동사와의 결속력에 따라 장소·방향·시간 부사류의 순서이며 SVI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3.3에서는 초점화에 의한 도치를 살펴봤는데, 화자는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정보 가치가 높은 초점 요소를 문미에 둔다. 이를 문미 초점이라고 한다. 문미 초점의 주된 이유는 문장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즉, 문장의 명료성의 확보에 있고 이 외에도 문장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 앞 문장과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대조를 위한 경우도 있다. 길고 복잡한 명사구가 문미에 위치해서 초점을 받는 경우에 명사구는 주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치 구문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미 초점, 문미 중점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문장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즉 명료성의 확보에 있다. 이외에도 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 문장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영어 주어-동사 구문을 지도할 때 통사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의 화용적 요인도 지도해야 주어-동사 도치의 구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영어 SVI 구문 지도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SVI 이외의 영어 도치구문을 앞으로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김두식. 1995. 영어 주어·동사 도치구문의 담화 기능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송석만. 1992. 영어 문장 포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Anderson, R. C. 1977. "The notion of schemata in the educational enterprise", in C. Anderson, R. J. Spiro & W. E. Montague (des.), *Schooling and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Hillsdale: Lawrence Erlbaum.
- Birner, B. J. And G. Ward. 1992 "On the interpretation of VP inversion in America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28(1): 1-121.
- Birner, B. J. 1992. *The Discourse Function of Inversion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Birner, B. J. and G Ward. 1994. "Information status and word order: An analysis of English inversion", *Language* 70(2): 233-259
- Bolinger, D. 199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Bresnan, J. 1991. "Locative case VS. locative gender".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7: 53-68.
- Brown, G. &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UP
- Büring, D. 1997. *The Meaning of Topic and Focus*. London: Routledge.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N. Li and S. A. Thompson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Coopmans, P. 1989. "Where stylistic and syntactic processes meet: Locative inversion in English", *Language* 65: 728-751.
- Curme, G. O. 1931. *Syntax*. Boston: D.C. Heath and Company.
1947. *English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 Emonds, J. E.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Root, Structure-preserving, and Local Transformation*. NY: Academic Press.
- Erdmann, P. 1979. *Inversion im Heutigen Englisch*.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 Finch, A. E. 1972 "The native speaker in the English conversation class in Korea", 슬피어문논총 제4집. 안동대학교 어학연구소.
- Firbas, J. 1964. "On Defining the Theme in Functional Sentence Analysis",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1: 267-280
- Fowler, R. 1970. "On the Interpretation of Nonsense Strings" *JL* 5:75-83

- Frank, M. 1972. *Modern Englis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Gary, N. 1974. "A discourse analysis of certain root transformations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Grad, A. 1955. "Affectivity and inversion in Modern English". *Zbornik Filozofske Fakultate* (Ljubijana) 2.
- Green, G. M. 1976. "Main clause phenomena in subordinate clauses". *Language* 52: 2.
- Green, G. M. 1985. "The description of inversion in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1: 117-46.
- Greenbaum, S. 1991. *An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Longman Group UK Limited.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arris, Z. S. 1952. "Discourse Analysis" *Lg* 28: 1-30.
- Hartvigson, H. and L. K. Jakobsen. 1974. *Inversion in present-day English*. Odense: Odense University Press.
- Hooper, J. B. & S. A. Thompson. 1973. "On the applicability of root transformations". *Linguistic Inquiry* 4.
- Huddleson, R. 1984.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W. W. Norton and Co.
- Jespersen, O. 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Syntax 7. London: George Allen & Unwin.
- Kaplan, J. P. 1989. *English Grammar*.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UP.
- Langacker, R. W. 1987. "Nouns and Verbs". *Language* 63:1
- Leech, G. N. and J.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Levin, B. 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in, J. 1983. "Government Relations and the Structure of INFL". in I. Haik & D. Massam(eds.)

- Levine, R. D. 1989. "On focus inversion: Syntactic valence and the role of a SUBCAST list", *Linguistics* 27: 1013-1055.
- Makkai, V. 1972. *phonology theory*. New York: Holt.
- Mathesius, V. 1928. "On linguistic characterology with illustration from modern English", *A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ed. by Vachek, J(1966).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59-67.
- May, R. 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McCawley, J. 1970 "English as a VSO Language", *Language* 46: 286-299.
- O'Connor. 1971. *Better English Pronunc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enhallurick, J. 1984. "Full-verb inversion in English". *Australian Journal of Linguistics* 4.
- Prince, E. F.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eter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New York: Longman.
- Reinhart, T. 1982.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London: Groom Helm.
- Rochemont, M. S. & P. W. Culicover. 1990. *English focus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MIT.
- Sledd, J. 1959. *A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Chicago : Scott, Foresman & Co.
- Sperber, D. & D. Wilson. 1994.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Stowell, T. 1978. "What was There before There was There", *CLS* 14: 458-471.
- Sundby, B. 1970. *Front-shifted ING and ED Groups in Present-day English*. Lund CwK Gleerup.
- Toolan, M. J. 1988. *Narrative: A Critical Linguistic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allduvi, E. 1990. *Informational Component*.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van Dijk, T. A. 1977. *Text and Context*. London: Longman.
- Weil, H. 1887. *The Order of Words in the Ancient Languages Compared with That of Modern Languages*, Translated with notes and additions by Charles W. Super. Boston: Ginn & Co.
- Zandvoort, R. W. 1962. "Is 'Aspect' an English Verbal Category?" *Contributions to English Syntax and Philology*. Gothenburg Studies in English, No. 14.
- Zandvoort, R. W. 1975.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London: Longmans, Green and Co.